

# 인쇄인은 기록의 전사



〈이종국 혜천대학교수 · 출판학회장〉

몇 해 전《라이프》지는 ‘1천 년을 만들어 낸 1백대 사건’을 선정, 발표(1997.10.)한 바 있다. 예수 탄생 이후 두 번째 ‘천 년’의 최대 사건은 1455년 요한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을 첫째 번으로 꼽았다. 요컨대, 인쇄술의 개발이 지난 1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모든 ‘세기를 뛰어 넘는 발명’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고선지(高仙芝)가 유럽에 종이를, 그것도 동양에서 이룩된 제지술을 전해 주지 않았던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가능했을까? 또, 우리의 선조들이 금속활자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한 벌의 활자 배열만으로 ‘천권(千卷)’을 찍어 낼 수 있었겠는가?

이 같은 물음을 새삼스레 짚어 보면 서양 문명의 수원지는 어김없이 동양이라는 해답에 이르게 된다.

예컨대, 1천 년을 더 소급해 보면 화약과 나침반도 동양에서 개발돼 세계의 균형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약과 나침반이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특히 서양인에 의한 세력 팽창의 전위 수단으로 둔갑되어 그들의 패권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짚게 된다. 이른바, 그러한 수단들의 사용은 ‘기선의 장악’에 필요로 하는 가장 위력적인 대상들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인쇄·출판술이 어김없이 개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널리 확인된 일이지만, 일찌감치 국경을 허문 것은 정작 책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판학자 허버트 베일리는 “인쇄술은 출판 개발에 이바지했고, 출판은 문화 발전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 두 가지 조건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천 년 전의 역사를 알아내며, 또한 천 년 후의 후대들에게 어제와 오늘의 사적을 전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온갖 멀티미디어들이 저마다 첨예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나, 그들의 뿌리는 인쇄·출판술로부터 진화 팽창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인쇄 문화 산업의 전방위를 감당하는 인쇄인은 당시대 삶의 내용을 공포하는 기록의 전사들로 존재한다. 그들은 또한 문자 배열 수단을 하나의 지식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출판인과 협력한다.

이는 공동의 사업이며 공생의 도모함이다. 이 때문에, 강조해 말할 나위도 없이 서로 밀고 끌며, 상생하는 지혜를 언제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이 둘의 위상은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된 이래로 단순히 삶의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로서 존재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어떤 낙후된 상황으로부터 보다 향상된 것으로, 후진적 문명으로부터 더욱 발전된 문화로, 봉건적 폭압으로부터 민주주의에의 성취로, 언어의 소멸 한계로부터 영구한 기억 수단으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로 끊임없는 저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마땅가지일 뿐이다. 이 같은 이념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이 땅의 인쇄인, 그 고려 공방의 후예가 더 없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까닭은 바로 그러한 의의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